2021 Vol. 13

ISSUE & FOCUS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4기 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연구개발지원단 4기 협의회장을 맡게 된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GSTEC) 신민철 본부장입니다. ISSUE & FOCUS 13호 발간과 함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 삶과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은 인공지능과 같은 ICT 활용도와 혁신의 속도에 좌우되고 개인은 온택트(On-tact) 서비스 이용이 일상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지역 과학기술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과학기술정책은 지역 주도로 고유한 문제를 정의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성장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올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전략과 방향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가속화하여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뉴딜시대에 지역 R&D를 전담하고 있는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이 정부와 각 지역에 부합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효과성이 강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의 R&D 거점기관으로써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의 중심축이 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소통과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과학기술 혁신성장을 위해 이끌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연구개발지원단 4대 협의회장
2021. 09.

신 민철

CONTENTS

07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새로운 지역주도 혁신전략의 실천모델,
개방형 정책플랫폼

47

04

R&D 성공사례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 경쟁력 확보
속도낸다

20

02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연구개발 정책 수립

23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Ⅰ.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Ⅱ.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Ⅲ.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Ⅳ. 보고서 발간소식

51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Ⅰ.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Ⅱ.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새로운 지역주도 혁신전략의 실천모델, 개방형 정책플랫폼

Ⅰ. 지역주도 혁신성장 전략의 필요성
Ⅱ. 새로운 혁신모델로서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등장
Ⅲ.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주요 내용
Ⅳ.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주요 사례
Ⅴ. 개방형 정책플랫폼 운영을 위한 과제: 대전을 중심으로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새로운 지역주도 혁신전략의 실천모델, 개방형 정책플랫폼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정서화 선임연구원, 최병철 단장

Ⅰ. 지역주도 혁신성장 전략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집약적이고 빠른 추격형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 저성장과 지역경제 위기를 맞이

-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원한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정책,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수도권 본사-지방 생산기지화' 구조로 자리 잡으면서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 내 동태적 혁신역량이 부족(정미애 외, 2020)

❖ 이에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성장 정책을 마련 중(산업연구원, 2021)

-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
- 지역별 맥락에 맞는 혁신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 가치 기업을 집적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성장 선순환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

❖ 지역혁신성장 전략의 성공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원천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혁신체계로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은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 처방을 위한 정책의 현장성을 시급하게 요구(김성진, 2018; 황혜란, 2019)
- 생산자 관점, 수직구조의 기존 정책적 접근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혁신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지역 행위자간 연계와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정책이 필요(정미애 외, 2020)

Ⅱ. 새로운 혁신모델로서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등장

❖ 전세계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여겨왔던 클러스터 이론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역 내외부 자원의 연계·협력에 근거한 개방형 플랫폼 기반 지역혁신정책이 부상(황혜란, 2019)

- 특히 지역혁신에서의 시장메커니즘 강조, 개방성과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지역 내 혁신 주체 간 연결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및 지역 주체성과 시장과 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마련(김성진, 2018)

❖ 특히 높은 해결력을 갖는 정책 솔루션을 찾고자 정부 내·외부 다양한 행위자 기반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시도(조세현·정서화, 2019; 조세현·차세영, 2020)

- 이해관계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해 통합적 시각에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다수의 문제해결 포인트(leverage point)를 함께 발견
- 기업 및 현장 전문가, 정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미래 지향적 혁신정책의 의제와 전략을 도출

❖ 이를 통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 및 지역혁신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포괄적 정책설계 방식을 고민(이민형 외, 2020)

- 혁신시스템 진단, 실행에 있어 병목현상 분석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통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 중
- 상위 정책조정 및 전략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의 창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자원 투입 및 혁신정책평가의 선순환 지원

Ⅲ.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주요 내용

1. 정의와 구성요소

❖ 개방형 정책플랫폼은 국가·지역·산업·사회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정부, 민간 싱크탱크, 다학제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혁신 활동이자 정책의 집단지성 플랫폼을 의미(Gryszkiewicz et al., 2016: 68; McGann et al., 2018: 253; 조세현·정서화, 2018, 2019; 박찬수 외, 2020)

-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공동 정책설계 과정을 거치며 정책실험(정책랩, 리빙랩)을 통한 정책의 오차를 발견·수정하는 정책·제도학습의 장(場)으로의 역할 수행

❖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주요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 및 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활용(조세현·정서화, 2019: 15)

-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는 일상생활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성장 방식으로 법·제도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통합해 국가 행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행전략으로서 플랫폼 방식의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사업기획, 법·제도 개선, 실증 지원 등의 혁신 솔루션 개발

❖ 현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환경의 정량·정성 데이터를 분석 및 공유함으로써 증거기반의 정책설계 및 참여자간 상호학습 지원

- 디지털 신경제에 따른 새로운 혁신 생태계 환경의 변화 탐지(horizon scanning) 및 정책환경분석을 통한 증거
-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이슈의 대표성', '신뢰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통과 상호학습을 지원함

2. 운영과정

❖ 캐나다, 영국, 독일, 유럽 등 주요 국가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방법론을 도입해 정책플랫폼을 운영(조세현·정서화,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20)

- 캐나다는 범부처적 이슈를 다루는 싱크탱크인 Policy Horizons Canada를 설립해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변화, 사회·지리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예측 및 비전수립을 위한 크라우드소싱, 시나리오기법, 관계자 워크숍 등을 진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
- 영국은 개방형 정책결정(Open Policy Making)을 촉진하고 정책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내각처 산하에 UK Policy Lab을 설립하고 다학제 팀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관계를 통해 고령화, 산업전환, 노동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이슈 등에 대응 중

- 독일은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인간 중심의 사회를 목표로 Platform Industrie 5.0 (I5.0 플랫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중심 워크숍을 통한 공동설계 방식으로 산업과 사회의 전환 전략을 도출
- 핀란드의 경우 지속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신산업 전략 도출, 고용, 교육, 환경 등과 같은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Architecture of solution)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워크숍 운영

❖ 정책플랫폼은'전략적 디자인(strategic design)'의 개념을 통해 수요자 관점으로 핵심이슈를 조망하고, 초학제적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 및 핵심 전략을 도출

· 시스템적 사고에 입각한 문제의 진단과 정의
· 정책이슈 탐지 및 환경분석 수행
· 미래예견적 정책 목표 및 수단 설정을 위한 미래 기반의 현재 설계 수행(speculative design)
· 이해관계자 간 목표 조정, 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간극 조정
· 집단지성을 극대화하는 공동정책설계(co-design) 수행
· 정책실행 과정에서의 미세조정을 위한 검증과정(policy prototyping)

표 1 개방형 정책플랫폼 수행단계별 주요 활동

Framing	• 이슈·문제의 선정 및 이를 구성하는 시스템 (요소) 파악
Networking	• 이해관계자/전문가 식별 및 조정 • 플랫폼으로서의 조직
Scanning	• 이슈 탐지 및 정책환경 분석 등 제도적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System Mapping	•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 • 시스템 내의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정 하에서시스템의 변화양상 파악을 위해 활용 가능
Strategic Design	• 시스템 내 사람·사물·조직 간의 상호연결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종합적인 전략 및 사고 •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를 결합한 개념으로, 문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다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복력 있는 해결책을 디자인적 방법을 통해 도출
Scenarios	• 특정 조건 하에서의 있을 법한(plausible) 미래의 모습 탐색 • 기존의 가정을 재검토하고 현재의 정책·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도전과제 및 기회 파악 가능
Participatory Prototyping	•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유형화(make tangible)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발생가능한 문제를 초기에 개선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설계(co-design)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0: 18)

3. 개방형 정책플랫폼 운영의 효과

❖ 개방형 정책플랫폼은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문제 구조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정책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기여하고 정책 프로토타입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학습을 불러옴

❖ 다양한 관련 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수요 구조화, 현장전문가와 정책연구자의 정책적 의견, 정책결정자의 정책문제 관점 등을 반영한 정책문제 구조화가 가능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프로토타입의 반복 검증과정은 정책 시행오차를 줄이며 정부간 관계, 정부-민간 관계의 역할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함

표 2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운영 효과

초점	문제	결과	플랫폼 역할	새로운 정책적 접근
정책 결정 및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별적으로 진행	정책 집행 시 정책 수혜 대상의 소외 현상 발생	수요자 중심 정책설계 (테스트, 학습, 적용)	· 결과중심적 · 수요자 니즈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개발 가능
변화 관리	변화는 특정한 기획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	정책 활동은 다양하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 발생	정책과 실행의 역동성 제공	· 제도적 적응성 확보 · 통계적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확보 · 공공정책결정과정의 유익한 피드백 제공
지원 시스템	사전 계획된 지원 및 평가 활동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도 지원 시스템이 경직되어 매몰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중심 정책 기획 및 추진, 혁신결과의 부처(서)간 공유	· 부처(서)간 협업 및 성과 공유

자료: 조세현·정서화(2018: 40) 내용을 수정

Ⅳ.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주요 사례

1.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POINT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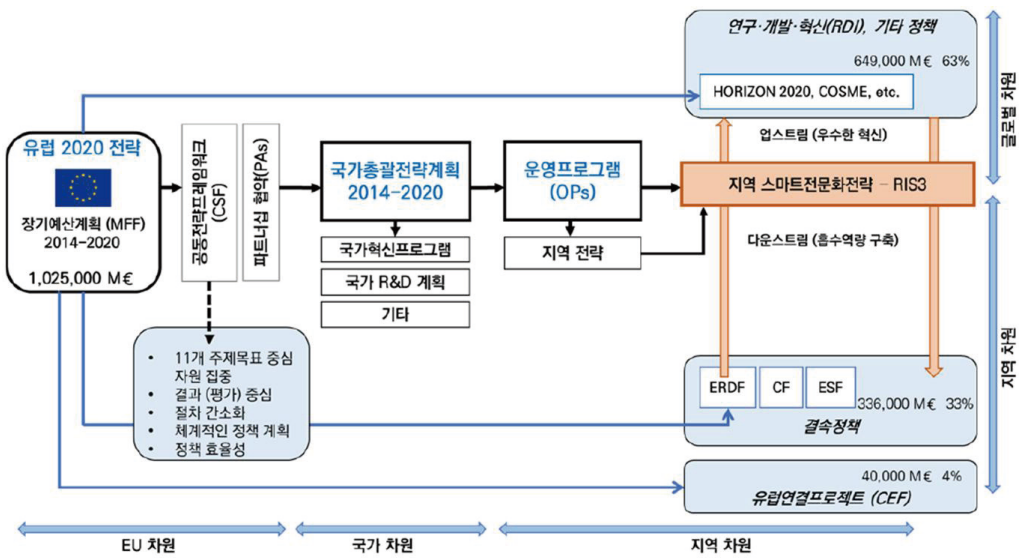
❖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은 비즈니스 수요의 관점에서 연구와 혁신에 대해 지역의 강점을 개발·조합하며 비교 우위 확립을 해나가는 우선순위 전략(이민형 외, 2020: 48-49)

- 중앙의 일방적 중복 투자를 벗어나 지역의 특화된 지식 창출 활동과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의 우월성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
- 지역 특성 기반의 지식자산을 활용한 상향식 기업 가적 발견 프로세스이며 우수한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조직의 참여로 활성화
- 현재와 미래의 비교 우위 분야 발굴을 위해 지역, 민간 이해관계자, 기업가 주도의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실험과 새로운 분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정책 간 조정을 강조

❖ EU와 OECD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식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에 따른 다양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

- 시장과 민간부문이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상호작용 과정 하에서 정부는 성과를 평가하고 활동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혁신 주체들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EU의 경우 거시적인 성장전략 틀 내에서 RIS3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우수혁신을 도모하고 혁신정책과 지역정책의 연계 협력 전략으로 활용(허동숙, 2020)

그림 1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한 EU-국가-지역 연계 협력



자료: 허동숙(2020: 303).

❖ POINT(Project in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Transitions) Review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구체적인 연구 및 실행 방법론

- 지역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전문화를 통해 지속적 자산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이해관계자 중심의 정책 개발과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자 방법론
- 수요 및 현장 중심 정책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미래 시스템을 합의하고, 지역의 자산과 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
- 특히 국가 및 지역의 산업전환을 위한 과제 및 기회를 도출할 때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으로 1) 목표 대비 자원, 생산, 소비의 측면에서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2) 산업전환의 레버리지 전략 도출

그림 2 POINT Review 방법론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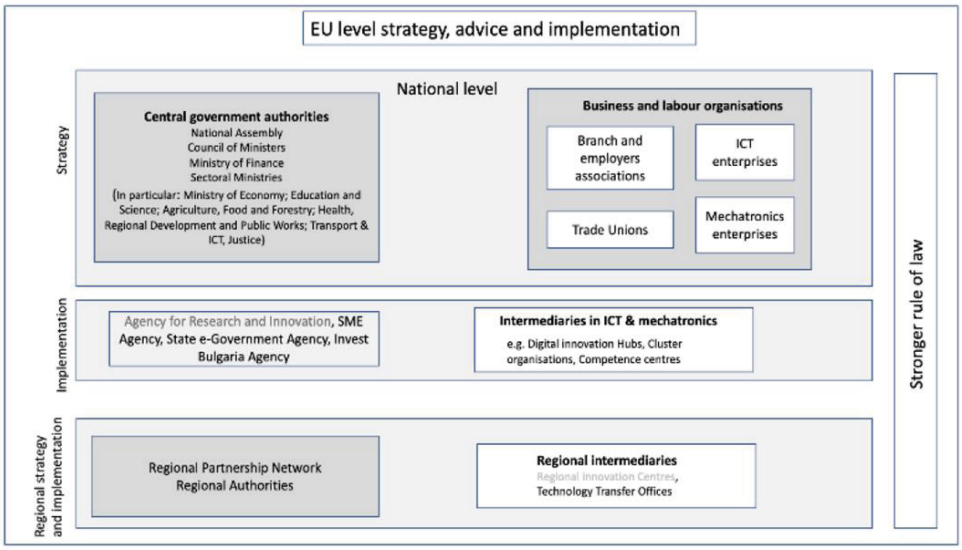


자료: EC(2020). POINT reviews: an overview.

❖ 불가리아는 ICT 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연계 강화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요지향 미래비전 제시

- 정책플랫폼 운영을 통해 광범위한 조사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을 위한 단·중·장기정책 제언 도출
- 인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개선안, 디지털 혁신방안,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 작성

그림 3 수요지향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이해관계자 맵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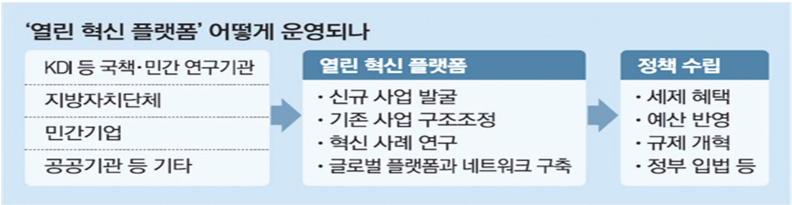
자료: Stefanov et al.(2021: 78).

2. 열린혁신플랫폼

❖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의제와 전략을 도출함에 있어서 개방형 혁신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2020년부터 '열린혁신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시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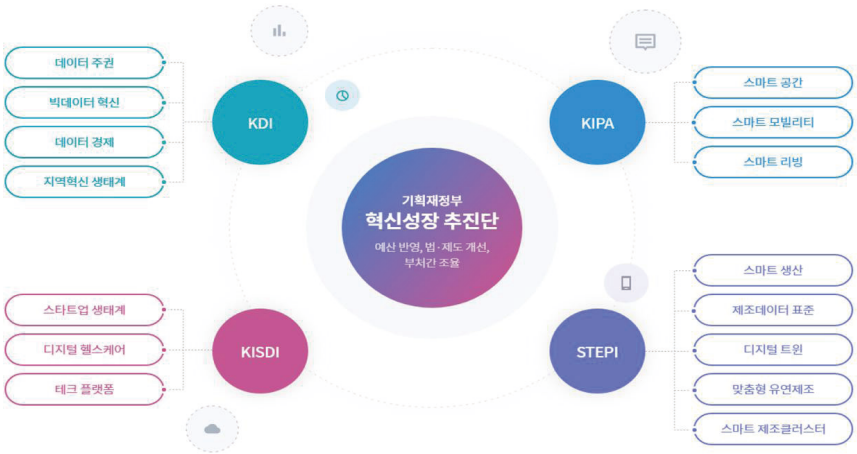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2019.8.관계부처 합동)에 근거해 플랫폼에서 합의·제안된 사안을 예산·세제·규제개혁 등에 반영할 예정
- 민간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결과만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그림 4 열린혁신플랫폼 운영과정



자료: 매일경제(2019.9.6). 혁신성장, 국책硏·민간이 주도…정부는 뒤로 빠진다

그림 5 열린혁신플랫폼 추진주체와 주요내용



자료: 열린혁신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oipp.kr/)

❖ 열린혁신플랫폼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정책 수립을 사실상 주도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현장 전문가 주도형 혁신정책 수립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한국개발연구원, 2020: 4)

-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이 역점을 두어야 할 디지털 서비스·플랫폼 분야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제도개선, 직업교육, R&D 등 혁신 의제·전략을 활용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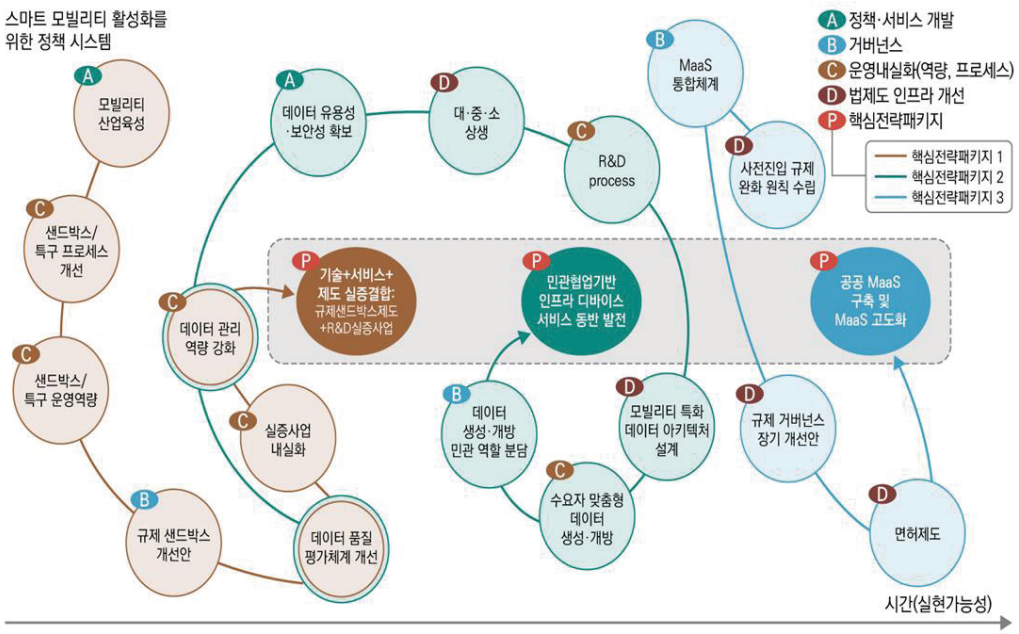
❖ 나아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정책랩(Policy Lab),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참여형 정책설계 수단을 활용해 정책의 비전·전략과 실행의 적합성(fit)을 높이고자 함

- 핵심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정책 의제와 전략을 공동으로 만드는(co-creation) 장(場)이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서 기능함

[예시] 스마트 모빌리티 부문 워킹그룹 운영(한국행정연구원, 2020)

- 한국행정연구원은 각 워킹그룹에서 도출한 의제 및 전략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를 구성하는 의제 및 전략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핵심전략패키지를 개발
- 핵심전략패키지의 특징은 각 워킹그룹 내 의제안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각 워킹그룹 간 의제안들의 결합을 통해 모빌리티의 실증·검증을 위한 기술적·공간적·제도적 기반 강화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혁신지원체계, 법·규제, 데이터 워킹그룹 내 의제안을 각각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워킹그룹 간 의제안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스템적인 연결성이 드러나도록 통합된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모빌리티의 실증·검증을 위한 기술적·공간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각 워킹그룹을 넘나드는 의제안의 인과지도(casual loop diagram)와, 세부 전략안들로 구성하여 이를 발전시킨 핵심전략패키지를 제안함

스마트 모빌리티 워킹그룹 의제 및 전략안 인과지도(casual loop diagram)



Ⅴ. 개방형 정책플랫폼 운영을 위한 과제: 대전을 중심으로

❖ 디지털·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 연구·산업단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연구가 필요

- 최근 혁신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등 지역 내생적 산업의 전환 전략 및 AI, 드론·로봇, ICT 등과의 융합혁신 전략 마련 필요

- 주력 산업분야인 바이오헬스, AI·빅데이터,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전략 및 바이오+AI, 바이오+드론·로봇+ ICT 등 과학기술 융합혁신 전략 마련

❖ 지역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전환 전략을 도출하고 나아가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같이 지역이 주도하고 혁신성장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지역혁신체계 방안을 마련

❖ 개방형 정책플랫폼 운영을 통해 대전지역 과학기술계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시민사회 혁신자원의 결집으로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 주도적 혁신성장 모델 정립이 필요

- 대전의 혁신자산인 대덕특구의 지식이 지역 현장의 지식이 맞물리며 정책과 공유되는 방식의 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필요
-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해 이들 간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실패의 확률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미세조정을 위한 제도적 학습과 실험 공간 마련이 필요

❖ 대전은 주력 산업분야 진흥과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현장수요 기반 미래 지향적 지역혁신전략 도출을 위한 개방형 정책플랫폼을 운영 예정

- 민관산학연 뿐 아니라 의회 및 언론을 포함한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과학기술, 산업, 지역사회, 법 제도에 이르는 지역주도 혁신전략의 추진 기틀을 마련
- 혁신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정책실험과 실증을 지원함과 동시에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참고문헌>

김성진. (2017). “지방분권화에 따른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체제 구축 방안”. <ISSUE WEWKLY>, 2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매일경제(2019.9.6). 혁신성장, 국책硏·민간이 주도…정부는 뒤로 빠진다.

박찬수·오윤환·김인숙·구윤모. (2020).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1차년도>.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21).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정미애·김선우·성지은·오승환. (2020).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STEPI Insight>, 24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안두현·이명화·김태양·나다영. (2020). <시스템 중심 혁신정책 평가체계 구축과 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세현·정서화. (2019). “정책랩의 개념과 동향”, 조세현·정서화·김윤경·하은희·차세영·정미나·김종우·이양수·이화진. (2019). <개방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장.

조세현·정서화. (2018). “정책실험의 이론적 배경”, 조세현·정서화·윤영근·이화진·한숙현. (2018). <시민 참여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운영 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장.

조세현·차세영. (2020).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Policy lab)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020). <참여적 정책설계 플랫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행정연구원. (2020). <2020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OPL 활동보고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허동숙. (2020). “EU 지역혁신정책의 동향 및 사례 연구”. <EU 연구>, 56: 293-333.

황혜란. (2019). <대전의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EC. (2020). POINT reviews: an overview.

Gryszkiewicz, L., Lykourentzou, I., & Toivonen, T.(2016), “Innovation Labs: Leveraging Openness for Radical Innovatio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4(4): 68-97.

McGann, M., Blomkamp, E., & Lewis, J. M. (2018). “The rise of public sector innovation labs: experiments in design thinking for policy”. Policy Sciences, 51:(3): 249-267.

Stefanov, R., Boeckholt, P., & Pontikakis, D. (2021). POINT Review of Industrial Transition of Bulgaria (No. JRC123901). Joint Research Centre (Seville site).

열린혁신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oipp.kr/)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연구개발 정책 수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연구개발 정책 수립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이종영 단장

지난 수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과학기술 R&D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 근거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에 따라 지역 자율성과 지역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이 근거에 따라 지역의 과학기술에 대해 지역 주체들이 혁신역량을 확충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R&D 역량 고도화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 성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중앙 정부의 개별부처가 주도하는 R&D 지원 체계는 지역 R&D의 발전에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중앙부처가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매칭의 역할만 수행했는데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기술혁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비사업 공모 위주인 지방비 매칭의 산발적 예산 투입으로 지역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모니터링을 지자체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역 전반에 대한 과학기술 R&D 기획 역량의 증대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 미래 과학기술 수요에 맞추어 획기적인 R&D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발적인 R&D 투자 및 예측 가능한 과학기술 R&D 수요를 위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 역량 확충을 위한 조사분석과 평가의 기반 구축에 관련한 측정(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 연구개발 및 지역 연구개발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의 확장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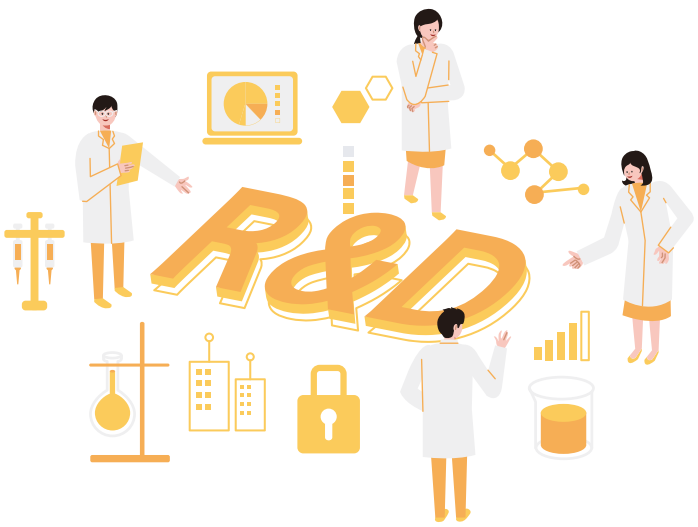
그리고 지역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 확보에 노력하는 등 지역 위기를 내생적 성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R&D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품목 기술 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이 감안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를 받아 해결하는 Bottom-up 방식으로 기획된 연구개발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의 R&D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에 발맞춰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기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중·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자체의 R&D 투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방안으로 첫째, 지자체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를 발굴하고 이를 확대하여 지역 특화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한 지역인재 유치와 함께 해당 지역의 경력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R&D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율 R&D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객관적인 지역 R&D 평가 및 예산의 조정이 가능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연구개발지원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특화된 산업을 위한 과학기술 R&D 지원이 전 지역 산업으로 나아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Ⅰ.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Ⅱ.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Ⅲ.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Ⅳ. 보고서 발간소식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Ⅰ.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021년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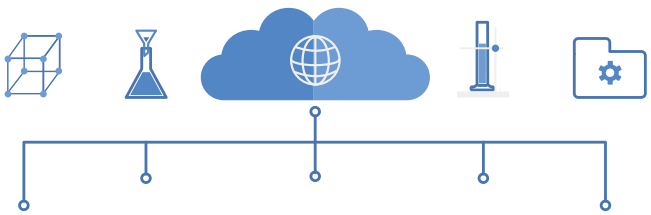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6월 29일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 산학연관 혁신활동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본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착수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연구장비 실태파악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과 산학연관 혁신주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5월 18일(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방안과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방향성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내외 산업·경제현황분석, 경북 지역산업 현안 도출, 기본방향 및 비전제시, 산업분야 별 세부 추진전략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 창업·기술·일자리 지원방안을 포함해 11월 말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검토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으로 확정해 비전을 공유하고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추진 및 운영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 개최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21년 지역과학기술정책 현안 이슈 공유, 정책 수립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이다.

2021년 7월 5일 분야별 전문가 5인이 참여하는 제 1차 광주과학기술정책 연구회에서 2020년 기 발굴된 과학기술정책 주요 아젠다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책보고서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AI기반 신규과제 기술 수요조사 추진 및 인공지능 기반 산업트랜드 변화에 대한 의견도 함께 공유하였다.

2차 회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R&D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작성 기반을 다졌다.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지역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인공지능 산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R&D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 운영 중인 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지난 7월 자율적인 지역혁신정책 발굴과 지역의 현안 공유 등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2회에 걸쳐 진행된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자문회의는 총 18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신산업간 연계가 가능한 지역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분야별 혁신기관의 연구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번 자문회의를 통해 제시된 지역 내 과학기술관련 아젠다는 과학기술정책기획분과위원회를 통해 그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향후 아젠다별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분과별로 구성된 연구회는 유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1년 지역 R&D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R&D 및 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 발간할 예정이다.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시 예산투자 효율성 향상, 사업성과 극대화 및 사업수행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대구 시비가 투입된 연구개발사업(R&D, 비R&D)에 대하여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성과평가는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229개 사업(계속 183, 종료 46)에 대하여 1차 정량 평가와 2차 현장평가, 서면평가 및 심의평가로 진행되었으며,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라 현장 평가를 최소화하고 2차 서면평가에서는 서면검토평가와 비대면(발표) 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대구시는 시 재원이 투입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Plan-Do-See”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대구연구개발지원단)를 성과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기반의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제1회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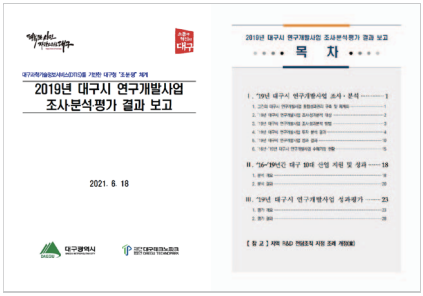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성장 정책발굴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에는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2021년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20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한구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토대로 대구지역의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대구 R-COSTII에 대한 평가방법 개편 영향분석, 대구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약점 분석 등 자체 심층분석한 결과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세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곧 발간될 이슈페이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혁신 주체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능을 강화하고,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보고회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대구시와 함께 지난 ’21년 6월 「’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시 창업진흥과가 주관하고 경제국장, 일자리투자국장, 혁신성장국장,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보좌관, 창업진흥과장, 대구연구 개발지원단장(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장)이 참석하여, 지난 ’20년 8월부터 실시한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를 시작으로 ’21년 6월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까지의 결과와 대구 5+1 신산업 지원실적을 보고하고 지역 R&D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본 보고회에서 검토한 지역 R&D 전담조직 운영계획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테크노파크(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를 대구시 R&D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제1기 대전 혁신커뮤니티 활용 의제발굴사업 최종워크숍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시 산업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참신한 의제를 도출하고 개방적·창의적·융합적 혁신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촉진을 위하여 ‘대전 혁신커뮤니티 활용 의제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전시가 가진 중요한 혁신자원으로서 과학기술인, 시민, 청년 및 글로벌 등 자생적인 혁신커뮤니티의 발굴·육성·지원을 통해 수요자 기반의 의제를 도출하고, 지역 내 혁신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융합혁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제1기 혁신커뮤니티는 7개가 선정되어 사업 수행 기간에 대전산업발전 및 과학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의제와 전략안을 도출하였고, 커뮤니티 구성원 간 지역혁신 관련 지식과 노하우 교류 등 상호학습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모임을 꾸려왔다. 지난 5월 20일에 워크숍 형태로 커뮤니티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과학기술과 시민의 삶을 연결할 수 있는 의제와 아이디어 발굴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후 1기 커뮤니티 활동 내용과 도출된 의제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 참여형 의제발굴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1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7월부터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제2기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총 10개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8-11월(4개월)동안 지역의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공동 의제 도출 방식의 커뮤니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커뮤니티가 제안한 의제, 대전시와 연결한다” (HelloDD, 2021.05.20.)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05

2022년 부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2022년 부산연구개발 투자방향(안) 포럼'을 7월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2022년 부산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의 전문성·실효성·전략성 제고 및 부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부산시 내외 산·학·연 전문가, 市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R&D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2017년부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올해부터 투자방향 수립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축하여 「2022년 부산 연구개발 투자 방향(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 부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은 산업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및 경쟁력 확충을 목표로 기술고도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집중투자 방향이 제시되었다.

포럼은 투자방향 발표를 중심으로 부산시 연구개발투자방향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패널토론 및 관계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과학 투자의 중요성', '연구기관 간 융합의 중요성', '특화산업 마련'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2022년 부산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부산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bistep.re.kr/web/board/view.do?mId=50&brdIdx=96

2021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제1차 리빙폴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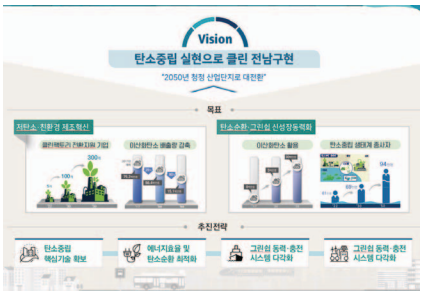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021년 7월 29일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제1차 리빙폴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리빙폴은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계절성 악취에 대해 시민 및 이해 당사자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 및 기존 정책 문제점 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 7명, 연구자 2명, 전문가 3명, 지자체 3명, 행안부 1명, 연지단 2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행정안전부 이미경 행정사무관은 "기존 R&D는 실험실 수준의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업은 주민이 느낄수 있게 기업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하며, 리빙폴을 통한 정책제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빙폴을 통한 정책제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전남도, 전국 첫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라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고 '2050 전남도 탄소중립 종합비전'을 실현할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이다. 전남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를 차지해 '탄소중립, 클린 전남구현' 핵심 분야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철강 48.3%, 석유화학 32.7%, 조선 0.3%다.

전남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전남TP 주관으로 관련 협회,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전문가 32명이 참여한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 TF'를 구성, 운영했다.

그 결과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등 4대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28개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력산업 분야에 총 7천 220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사이트 https://www.jeonnam.go.kr/도정소식-보도자료

2021년 제1차 제주과학기술정책협의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정책수립과 지역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제주과학기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행했던 제주형 뉴딜대응 과학기술 혁신기관 정책보고서와 R&D사업 기획보고서를 공유하고, 2021년 신규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 혁신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특허와 기술개발 등 과학기술 성과를 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제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영세한 제주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혁신협의회 구성과 정기적인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제주 혁신기관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 과학기술의 진흥과 지역 산업육성,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의 연결을 위해 정보공유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587
(미디어제주)"제주과학기술분야 성과가 지역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Ⅱ.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21년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 과제 발굴 및 고도화 지원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21년 강원도 미래 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R&D 기획과제를 10건을 선정하여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함께 신속한 R&D 지원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도화 과제 3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내 IP 활성화를 위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20년부터 현재까지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도와 함께 R&D 고도화 신속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 미래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경남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 선정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민간 주도형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2021년 경남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를 운영한다.

지역 과학기술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이 목표인 이번 연구회에 8개의 민간 연구회가 지원신청 (5월 3일~14일)을 했고 이 중 「신 경남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을 제안한 경상국립대학교 (최규현 교수) 연구회 등 6개 연구회가 선정되어 총 6,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19년~2020년 연구회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중앙부처 공모에 신청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회(남상용 교수)는 교육부의 차세대수소발생 및 수소연료전지(차세대수전해 소재·부품·장치, 연료전지가 탑재되는 무인항공기) 사업에 선정되었다.

2021년 미래유망기술 R&D기획 지원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국가과학기술 진흥정책과 연계한 광주광역시 우수성과 중심의 R&D사업 확대를 통해 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촉진시킬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 발굴하기 위한 R&D기획 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은 지원 분야 및 기회 확대를 통한 보고서의 활용성 제고, 질적 강화를 도모하고자 상·하반기 총 2회로 나누어 접수 및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상반기와 하반기 각 4건씩 총 8건의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약 4개월 간 R&D기획을 수행할 예정이며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향후 과학기술기반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정책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한 R&D 발전 범위 확장을 초석 삼아 광주의 11대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국비사업을 유치하고 지역주도사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융복합 R&D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2021년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융복합 R&D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을 7월 완료했다. 지역기업과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해 1년간 지원 예정이며 컨소시엄당 최대 2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4년부터 진행되어온 출연연구기관 R&D 사업은 현재 평균 1억 원당 3.52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며 높은 사업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지역현안 해결형 연구개발(R&SD) 문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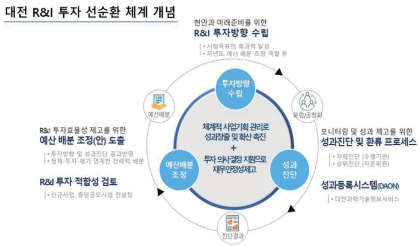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자생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현안 해결형 연구개발(R&SD) 과제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월 개최된 본 세미나는 현장 목소리에 밀접한 관계자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위원, 시민단체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21년도 대구시 민원 분석 결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총 6개 분야(▲안전, ▲에너지, ▲복지, ▲교통, ▲환경, ▲기타(폭염))에 17개 현안문제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기획위원회 운영으로 고도화된 지역현안 정의서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R&D 역량 강화 및 지역 자생적 R&D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R&I 투자 선순환 체계(안) 수립 및 검증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안 마련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DISTEP)은 올해 상반기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혁신(R&I)사업의 투자 선순환 체계(안)에 대한 검증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한다. 워킹그룹에는 R&I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시 산하 7개 기관이 참여하며, 8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차가 계획되어 있다. 본 워킹그룹에서 투자방향 수립, R&I 투자 적합성 검토, 성과진단, 예산배분·조정 및 조사·분석 등 투자 선순환 체계 내 단계별 세부 사항과 '22년부터 시범 운영할 시범대상 과제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업수행기관과 공동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전 R&I 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기획 공고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2021년 서울시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기획의 신청 모집을 공고하였다.

지원 분야는 ▲지역·도시문제 해결 분야 ▲미래성장동력 발굴 분야로, 서울시의 지역적 수요에 맞는 R&D 사업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의 대학, 기관, 기업 등 소속 전문가로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 과제의 지원을 받은 기획은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본 기획 과제를 통해 선정된 R&D 사업 기획 제안자에게는 R&D 기획 교육, 1:1 전문가 컨설팅, 기획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로써 향후 서울시의 자체 R&D 기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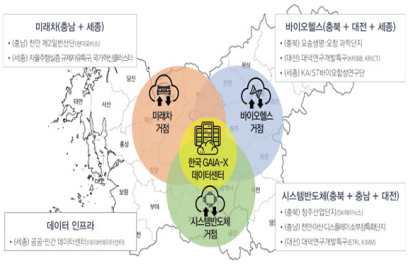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6월, 재단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을 발제자로 초청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10대 유망 신산업”을 주제로 향후 유망 신산업 및 실행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10대 유망 신산업을 세종시의 지역혁신 자원과 연계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수립 고도화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대한민국 데이터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수립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연계·협력하여 BIG3xD.N.A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총괄지원센터(가칭: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데이터 경제·비즈니스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는 향후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판매, 수출의 데이터 활용 지원과 인프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상생형 신성장동력 확보와 공공·민간 부문 데이터 주권확보 및 BIG3 기반 데이터산업 성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산학연관 연계 협력 기반의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착수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은 세종시 지역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대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에너지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육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향후 세종시 산업 발전을 선도할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세종시 에너지산업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1차 울산 자원순환 클러스터 협의회 현장 방문 세미나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021년 6월 28일 제1차 울산 자원순환 클러스터 협의회 현장 방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울산의 폐플라스틱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 적합형 과제를 발굴 기획 제안하기 위한 현장방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울산연구원 김희종 연구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재형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이재창 책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송봉란 팀장 등 6명의 유관기관 인원과 ㈜에이케이에스 고관태 이사, (주)제일화성 권성헌 부사장, 코끼리공장 이채진대표가 참석하여 사기업과 공기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울산지역 공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지역에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기획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였다.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기획지원사업은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공간 확보 등의 설립인정요건을 갖춘 전남지역 연구조직 설립 예정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수혜기업에 선정되면 연구조직 설립, R&D 기획 2개 분야의 컨설팅 및 연구조직 운영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담금은 없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전남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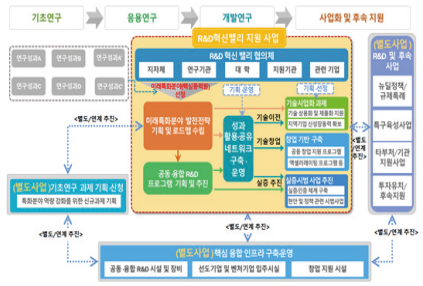
전남테크노파크는21년 6월 24일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구축하여 과학문화 사업 연계를 통한 교육 및 체험활동 협력증진,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의 상호지원,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과한 상호협력, 정보교류 촉진 및 과학문화 네트워크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체결되었다.

특히, 전남테크노파크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우주시대 개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꿈을 키우고 배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R&D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지단에서 기획한 '스마트 수송 인프라 기반 고성능 전지 소재 부품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북TP가 주관기관으로 뉴파워프라즈마, 비나텍, 디쏠, VCA KOREA,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총 11개 기술혁신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과제로, 120억원 규모다.

이로써 전북은 전기·수소차 개발에 이어 미래전지 개발사업까지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 그야말로 전북형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산업생태계 퍼즐을 완성한 셈이다.

특히, 지방 단위에서 추진하는 단일 연구과제가 100억원이 넘는 상당히 이례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된 2개 중 전북에서 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드론에 탑재될 초경량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개발하고 250w급 탄소섬유기반 연료전지 발전 모듈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21년 전북과학기술위원회 기획과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의 R&D 정책 및 기술투자 방향에 맞춘 전북특화 중대형 R&D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R&D발굴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구성·운영을 전년도에 비해 확대 추진(11대 연구회 : 제조업+비제조업)하여 도정 전반의 R&D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최근 정부R&D투자방향과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을 위한 『D · N · A + BIG 3』 산업육성 정책,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등 국내외 트렌드에 맞춘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21년 5~6월까지 분야별 기술수요조사 92건에 대한 기획과제 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여 ’22년도 이후 국책사업화가 가능한 기획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통해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 등 전반적 검토로 향후 지역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중대형 R&D과제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Ⅲ.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활성화 연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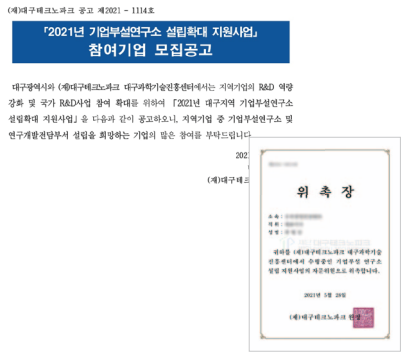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에서 5월 26일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기여와 R&D 활성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2분기 혁신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 2월 대전 전문가 초청에 이어 전북 유희숙 자치행정국장(前 과학산업국장)과 함께 전북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자체의 먹거리 육성 방안과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3분기 연구회는 9월에 진행될 계획이며 부산 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 자문단 운영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1114호

「202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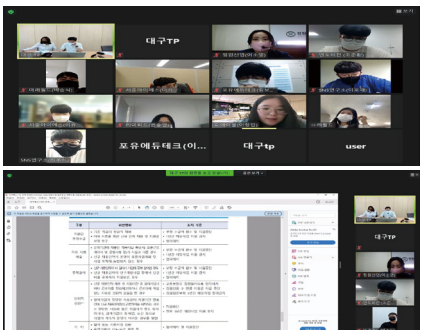
위 촉 장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기업 R&D 역량 강화 및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R&D 지역유치 확대를 위해 202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 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해당 사업의 지원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 내 소재지를 둔 기업 및 지역 내 연구소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부서의 설립을 위한 자문 등 제반 절차의 진행을 지원하게 된다. 연간 8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사이트 (재)대구테크노파크(www.ttp.org) -알림마당-사업공고

지역혁신기관 연계 브레인스타 양성사업 참여 청년 애로 수렴 간담회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지난 6월 4일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혁신기관 연계 브레인스타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애로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방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 청년들이 희망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1년 신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착수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1128호

「2021년 신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와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의 R&D역량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 제고를 위하여 **대부역량분석, 기술/시장/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제공하여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하고 **전략을 도출**하여 기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출 할 있도록 **「2021년 신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기획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2021년 신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에 착수하였다. 본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진행하였고, 7월 선정평가를 통해 3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8월부터 12월까지 기업에서 요청한 기술/시장/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국내외 동향, 사업화 전략 도출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 R&D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고 지역기업의 자생적 R&D 생태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dtis.re.kr)-사업공고-접수공고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 초청 특별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산울산 지역연합회와 함께 지난 7월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 초청 특별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개최」를 개최하였다.

특별세미나는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심, ESG'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재무정보보다 비재무정보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 소비자와 유권자들은 '고객·정부·기업이 모두 다 같이 공존해야한다.' 는 사회인식으로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ESG 경영은 점차 국제경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을 예상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특별세미나에 이어, 정책간담회에서는 김윤일 경제부시장과 「부산출향과학기술인협의회」회원들이 부산의 산업과학기술 발전을 주제로 지역혁신 방안을 논의하였고, '부산 특화 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대학 중심 산학협력 및 대학 활용방안 마련', '부산 미래먹거리 분야 집중 육성 및 수평적 정보소통강화'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참고사이트 https://www.bistep.re.kr/web/board/view.do?mId=50&brdIdx=97

보도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018700051?input=1195m

2021년도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개최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지난 6월 25일「2021년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이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충북·충남 연구개발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참석하였다.

본 과정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현익 부연구위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교육은 과제 조사분석과 성과 조사분석으로 구분하여 2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앞으로 연구개발지원단의 실무자들이 연지단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조사분석 과제를 더욱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유치지원 양해각서 체결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6월 1일 오후 2시 울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울산테크노파크와 울산 이전 기술강소기업 10개사와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R&D) 유치지원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한 기업들은 메탈페이스㈜, ㈜슈타겐, 에스아이콘㈜, ㈜에이케이에이, ㈜에이티솔루션, ㈜영진, ㈜우정플러스, ㈜이노션테크, ㈜젠라이프, ㈜코이즈 등으로 본사 2개사, 공장 1개사, 기업부설연구소 7개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8,000만 원(총 사업비 6억 7,000만 원)의 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된다. 협약에 따르면 이전 기술강소기업 10개사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이전 기술강소기업이 울산에 정착,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치게 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울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기술강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기술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기업체 간담회가 열린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늘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울산이 기술강소기업 허브화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울산시는 기술강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집적화 단지 및 입주공간 조성과 대기업-중소기업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간담회 개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은 5월 인천산학융합원(인천 연수구 송도 소재)에서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한 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시 미래먹거리 연구개발(R&D) 공동대응과 협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12개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빠른 지역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인천시 미래산업과 핵심사업을 공유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R&D 활동상 애로를 밝히고,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주도형 연구개발과제지원 확대, 연구원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12개 기업·기관과 미래 전지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뉴파워프라즈마·자동차융합기술원 등 12개 기업·기관과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업은 전지관련 주요 소재·부품기업인 뉴파워프라즈마를 비롯 비나텍, 테라릭스, 디쏠 등이다. 기관으로는 전·후방산업 실증·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융합기술원 외에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이다. 해외 인증을 위한 VCA Korea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기업 및 기관은 ▲미래전지산업 혁신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 육성 지원체계 구축 ▲전지 소재·부품산업 공동연구 기획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전지 소재·부품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지원 ▲전지 소재·부품기술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및 건강한 생태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연지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연구·개발(R&D) 혁신밸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역에 산재해 있던 전지 소재·부품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탄소중립 및 한국판 그린뉴딜 등 중앙정부 및 전북도 정책현안 해결에 큰 실마리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 에너지 프로슈머로 효율적인 전력거래 활성화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우린 전기도 사고 판다! 그린뉴딜 선도지역 완성'을 주제로 제5회 미래가치포럼을 개최했다.

류준우 ㈜그리드위즈 부사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치마을 조성을 위한 전력 거래방안'으로 ▲전력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요금제 도입, ▲제주 상황에 맞는 제주만의 수요자원거래시장 조성, ▲다양한 ESS가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장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성철 ㈜파란에너지 대표는 '에너지 프로슈머로서의 소비자 비용 절감과 시민참여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국민 DR을 소개하며, 참여자는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팔아 금전 보상을 받고, 국가적으로는 전력량 감소를 가져와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에너지 관리와 산업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521
(제주일보)"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전력거래시장 비즈니스 모델 제시"

제주 세포주 은행과 천연물 산업은 제주의 신성장동력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6회 제주미래가치포럼을 통해 제주의 다양한 천연자원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포주 은행 등을 기반으로 천연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생약자원 조직배양 세포주 바이오리액터 활용 안정적 원료 공급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박소영 충북대학교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해외 유전자원 및 원료를 국내산 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유용성 향상 및 특산식물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식물세포 분화조절 기술과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식물 바이오소재의 생산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도연 가피바이오 연구소장은 '천연물 조직배양 기술기반 생약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주제로 '유용한 목표 식물에서 식물세포 분화조절과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과 상업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천연물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식물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제주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779
(제민일보)"세포주은행과 천연물 산업은 제주의 신성장동력"

위기의 제주농업, 정밀 드론농업으로 띄운다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제7회 제주미래가치포럼을 통해 드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밀 농업으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탐사의 농업적 활용 – 드론을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나상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농업분야의 드론활용을 통한 배추, 양파 등의 작황 모니터링 사례를 소개했다. 드론을 활용한 농업관측은 시군단위의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필지 단위의 영농현장까지 확대되어 농가의 영농계획 수립에도 적극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상준 농업회사법인 ㈜제주천지 연구소장은 ‘무인기(드론)기반 정밀 농업의 미래 대안 – 제주지역 농업 활용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실제 제주도내 드론 기반 농업활용 사례와 과제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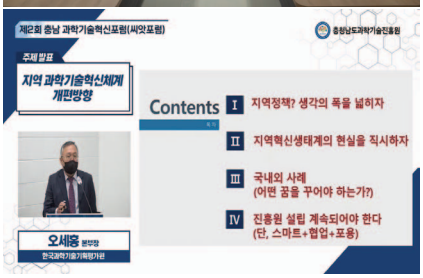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형 드론산업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과 협업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www.jejukyeongj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5 (제주경제일보)"제주농업 경쟁력, 과학기술과 정밀 드론으로 띄운다"

제2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은 5월 3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지역 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이 ‘지역 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우선 지역 과학기술정책 및 투자의 현 상황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연구개발(R&D) 전담기관 설립 등 함께 생각해볼 이슈를 제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선 진흥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공휘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장, 최병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과학산업혁신본부장, 박태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代)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광선 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Think-Tank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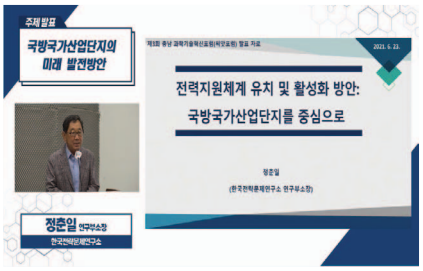
참고사이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uq_avGrFcSZpLaldbWU9g)

보도자료 제2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2021.4.29.)

제3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3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정춘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이 '전력지원체계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우선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추진 경위를 소개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성공 요소 및 기업 유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선 진흥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완중 논산시 국방산단팀장, 이용문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장, 양성광 혁신과경제연구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김춘선 호서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순으로 토론했다.

김광선 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진흥원은 충남 논산에 조성되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남 특화산업단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uq_avGrFcSZpLaldbWU9g)

보도자료 제3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2021.6.21.)

제3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및 제4회 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은 수소경제를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제4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이하 포럼)을 7월 8일에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3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완주 국회의원,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前회장, 이공휘 충청남도의회 의원,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이제식 충청남도 에너지과장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수소 기술 및 제도·정책(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부생가스기반 CO_2저감형 Hybrid 환원제철 증폭 및 재질기술 개발((주)SAC 유병돈 연구소장)', 수소 에너지 기술 현황(경일대학교 박진남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김광선 진흥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필수적이며 수소 기술 관련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제도, 예산, 법제 마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포럼이 되겠다"라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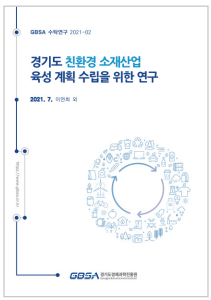
참고사이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uq_avGrFcSZpLaldbWU9g)

보도자료 제4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제3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과 공동 개최(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2021.7.13.)

Ⅳ. 보고서 발간소식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계획 수립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국내외 경제와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폭염,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과 신종 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환경적 측면뿐만아니라 산업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

2021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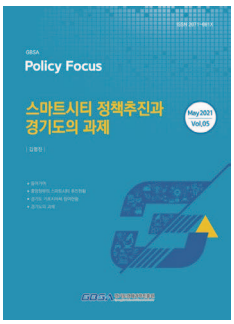


2021년 경기도 자체 연구개발 투자는 총 3,120억원으로 농림해양수산 859억원, 산업·중소기업 559억원, 과학기술 548억원, 일반공공행정 260억원, 환경보호 253억원, 문화 및 관광 189억원, 보건 99억원, 사회복지 1억원, 기타 352억원을 투자하였다. 실국별 투자는 경제노동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투자목적별로는 연구기관지원사업 2,005억원, 연구기반조성사업 895억원, 기술개발사업 2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

스마트시티 정책추진과 경기도의 과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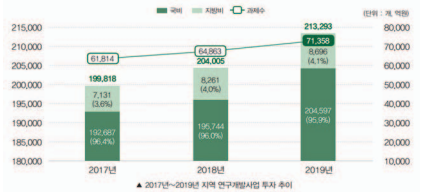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현재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따라「다양한 도시문제 해결」,「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스마트시티 조정」,「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에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총 18개 시군이 중앙정부스마트시티 정책사업 중 도시 운영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시흥시는 혁신성장동력 R&D, 수원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구리시는 스마트 챌린지,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25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광역자치단체 모델에 지원할 것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3개 시군에 관심을 가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가입을 독려하거나 경기도 독자적으로 "경기도 스마트시티 협의회"를 검토하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도 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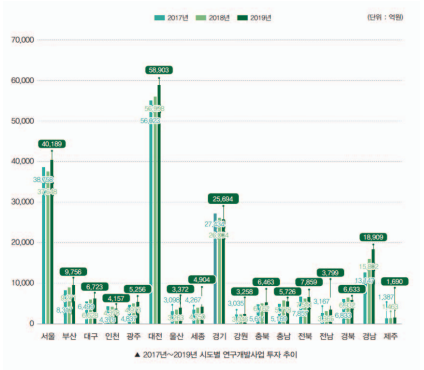
2020 지역 R&D사업 공동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 2017년~2019년 지역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 2017년~2019년 시도별 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에서는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019년 R&D 사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2020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17개 시도의 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은 213,293억원(국비 204,597, 지방비 8,696)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국비는 연평균 3.0%, 지방비는 10.4% 증가하여 지방비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 '19년 국비 사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86,350억원, 국비 매칭은 10.7% 증가한 22,385억원, 지자체 자체사업은 23.3% 증가한 4,558억원이며, 지자체 자체 사업의 투자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4.9% 증가하고 있으나, '19년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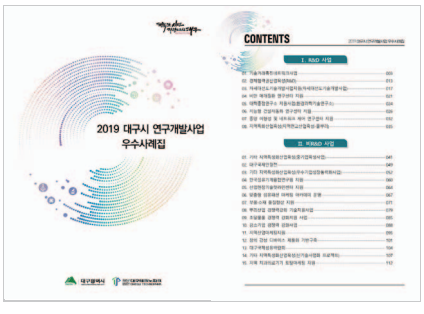
'19년 기준, 시도별 투자는 대전 58,903억원(27.6%), 서울 40,189억원(18.8%), 경기 25,694억원(12.0%) 등의 순으로 대전 및 수도권 지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연(硏) 108,840억원(51.0%), 산(産) 48,572억원(22.8%), 학(學) 46,488억원(21.8%), 기타 7,588억원(3.6%), 관(官) 0.8%(1,8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에서는 매년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R &D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사·분석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정보-간행물
http://dtis.re.kr/home/info/publicView.do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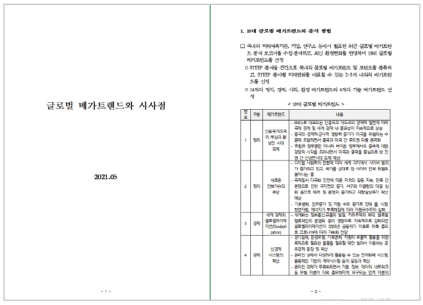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사업의 성과, 지원사례 및 성공 요인 등을 담은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 우수사례집은 2021년 4~6월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성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사업(R&D 8, 비R&D 15)의 주요 성과와 사업 성공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대학, 연구(지원)기관 등에 배포하여 우수성과 확산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정보-간행물
http://dtis.re.kr/home/info/publicView.do

R&D 정책 기획을 위한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시사점 발굴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실효성 있는 서울시 R&D 정책 기획을 위해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미래예측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최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8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선별하였다.

18대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미래변화를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 본 보고서를 토대로 시의성 높은 서울시 R&D 정책 기획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 분석 : 충남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중심으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보고서 요약

충남의 2020년 R-COSTII는 9.567점으로 전년도 대비 2계단 하락한 8위이며, 충남의 R-COSTII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연구성과 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강화 등 활동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이 필요함

충남의 노력과 별개로 수도권 및 대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과학기술혁신 자원을 균형 있게 분산 재배치하여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R-COSTII 평가 방법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참고사이트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ciast.re.kr)-발간물-연구보고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블록체인 이슈페이퍼 발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충북 내 블록체인 인식확산을 위해 2021년 블록체인 이슈페이퍼 3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하반기 블록체인 이슈페이퍼 4호 발간을 위한 기획 중이다.

이번 호에는 「충북의 블록체인 P2P 분산 거래 유통플랫폼 구축 및 현지 실증사업 현황」, 「충북의 블록체인 인재 양성 사업」, 「제1기 충북 블록체인 서포터즈 출범」등 충북 내 소식과 블록체인 산업 ISSUE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리고 특금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블록체인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블록 체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사이트 충북과학기술혁신원(www.cbist.or.kr)-발간물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researchweb.cbist.or.kr)-정보공유

04
R&D 성공사례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 경쟁력 확보 속도낸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



04 R&D 성공사례

경북도,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 경쟁력 확보 속도낸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사회,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은 신기술 확산 속에 산업 대변혁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이슈로 작동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화두가 되었던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 폭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지형은 비대면으로 변모했다. e커머스와 배달대행, 원격 의료·교육·모빌리티 서비스까지 비대면 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 시대에 폭풍 성장세다. 비대면 산업 성장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4차 산업혁명 대표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의 활용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 보인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을 앞세워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생산 설비와 로봇 등 현장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이라는 국가전략을 수립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육성을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기 위한 100년 대계의 정책적 과제 및 전략들과 연계하며, 기술 굴기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한국, 대만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비교적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민간의 참여와 관련 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많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수용력 지수는 수도권은 매우 높은 반면 지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등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는 모바일,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기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경남이 드론, 로봇, 대구가 VR·AR, 경북은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순위를 보인다.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지속 투자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유망 신산업 발굴·선점 등을 통해 경북형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자 2015년부터 총 100억 원 규모의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개요

- 목　　적 :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지역혁신정책과 연계한 경북형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 사 업 명 :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매년 시행)
- 전담기관 :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 사업내용 : 경북형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학·연 혁신 주체들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 상품화,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과학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1社 1기술 확보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건전성 강화 및 국가R&D 사업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지역 맞춤형 R&D지원을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에 지속 노력하고 있다.

효율적 정책추진을 통한 지역R&D 성과생산성 제고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R&D 투자를 R&BD 투자로 확대하였으며,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지역 특화 R&D사업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앙정부 R&D사업 대비 성과 생산성은 약 2.4배를 나타내었다.

표 1 지원금 1억원 당 성과창출 비교

구분	중앙정부 R&D사업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비고
SCIE 논문	0.20 건	0.57 건	약 2.8배
특허등록	0.09 건	0.26 건	약 2.8배
기술이전	1 백만원	2 백만원	약 2.0배
기술사업화	0.15 건	0.31 건	약 2.0배

경북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연계한 실행방안 마련 요구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6대 이니셔티브*, IBCA@GB**, 경북 스마트-X 산업혁신 新전략 2022 등을 수립하여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거점센터, 빅데이터 센터, 5G융합지구 등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확대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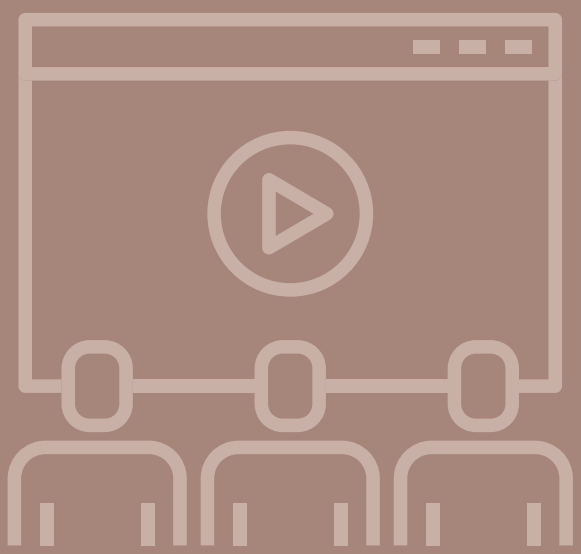
* 6대 이니셔티브 : 스마트제조, 첨단신소재, 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차세대 에너지, 혁신생태계 지원정책

** IBCA@GB : IoT, Big data, Cyber physical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현재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에서는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방안과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 R&D 여건 및 혁신 주체의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원 R&D 사업에서 제외되는 틈새 분야 중 경북형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경북 미래 성장동력 분야 등의 상용화 핵심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Ⅰ.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Ⅱ.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Ⅰ.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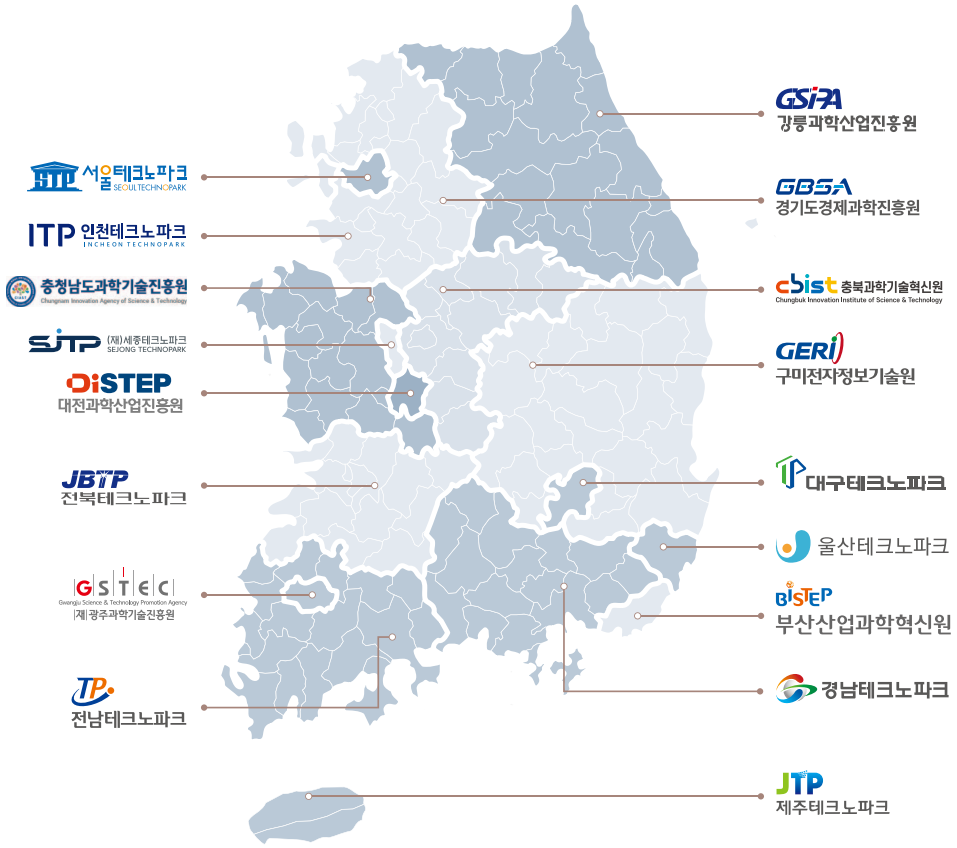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sjtis.or.kr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rn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Ⅱ.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13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631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012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2
광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062.609.0411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31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부산	부산산업과학혁신원	051.795.5017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0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83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763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971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5
충남	충남과학기술진흥원	041.540.3800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96